

## 아름다운 황혼 백수

—— 유 상 식 (법학박사, 前 경찰청 차장)



흔히 주고받는 인사치레다.

인간의 천명은 120세라는 것이 의학에서의 주장이다. 과학의 발달과 풍요로운 생활환경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잘 유지하면 백 살도 무난하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 70세에 노인 대접을 하면 서운해 한다. 고희는 옛말이 되었다. 한편에서는 노령 인구가 해마다 늘어난다고 사회가 온통 우울하다. 어떤 여건에서 오래 사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저마다 생각들이 분분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삶의 터전은 50대가 되면 들려져 백수로 처진다. 인생의 황금기에는 사회적 역할과 맡은 일에 열중하면서 성취와 보람으로 세월을 넘긴다. 그러다 퇴출이라는 생ibar을 맞고 천만 길 벼랑에 매달린다. 만년의 삶을 어떻게 추슬러야 할지 세월이 두렵기조차 하다. 초조 불안이 가슴을 짓누른다. 건강도 지켜야 하고, 어렵지 않게 생활도 해야 하고, 심심찮게 소일거리도 있어야 한다. 건강해도 사는 것이 어려우면 삶이 고달프다. 씁쓸이가 넉넉해도 건강을 잃으면 삶이 우울해 진다. 건강과 재물이 있어도 삶의 즐거움이나 재미가 없으면 하루하루는 지루하기가 산간 오지 간이역에서 기차 기다리거나.

예부터 사람은 오복을 지녀야 삶의 축복이라고 한다. 그러나 오복을 갖추고 사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백수가 되면 그 날부터 복(福) 타령이다. '내 복이 이것밖에 안되나' 하고, 모양새가 처진다. 등산길에서 갓 퇴직한 한 지인을 만났더니 어렵사리 말을 던졌다. "가진 것이 줄어들고 인정들이 멀어지니 서글픔이 눈앞을 가린다. 조직의 틀 속에서 길들여져 살다가 간섭이 사라진 자유인이 되고 보니 입은 웃을 벗은 양 허전하고 두렵기까지 하

다. 백수로 산다는 어수선한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한다."

삶에는 정답이 없다. 백수의 삶은 백가지 수를 찾아야 한다. 바쁜 것도 없다. 초조할 것도 없다. 세상사 허덕거린다고 풀리지 않는다. 건강을 다지고, 재물이 빈약하면 분수 대로 살면 삶에 여유가 생긴다. 부지런히 사는 것도 별미이고, 배풀기도 하고, 지내기가 힘든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훈기가 쏜다.

지난 세월에 당당하고 빛나던 때를 저만치 밀쳐두어야 삶이 편하다. 인생 후반은 빠르기가 가파른 계곡에 급류 같다. 하루는 급방이고, 일년은 코알이다. 일년, 십 년을 내다보지 말고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이 만년의 푸근한 지혜일지도 모른다. 현재 이 순간이 소중하다. 오늘날 살고 말 것 같은 진지함이 황혼 백수의 아름다운 매력이다. 순간이 연속되면 세월로 엮인다. 일, 성공, 명예를 미련 없이 놓아야 삶이 편하다. 욕심, 근심, 걱정, 체면, 원망을 버려야 마음이 편하다. 남과 비교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시기하지도 말아야 삶이 밝아진다. 이성에 도전과 지욕은 있다.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다. 천국과 지옥은 내가 선택한다. 허튼 욕심을 버우고, 마음을 열면 저만치 편안한 삶이 보인다. 질병이 없도록 건강을 지키는 것은 삶의 최고 가치다. 따뜻한 정이 전해지는 가족, 흥취물음이 정답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재미가 쏠쏠한 소일거리, 매사에 감사하고 감동하는 삶이 더해지면 이승의 천국이 아닐 런지.

일출의 해 오름도 찬란하고, 한낮의 강렬한 태양도 만물의 생명력이지만 해넘이도 아름답고 환홀하다. 늦가을 깊은 계곡에 색색이 농염 된 단풍은 산꾼이 아니라도 감탄에다 찬탄을 던져오는 연다. 황혼 백수를 안고 오솔길에 소복이 쌓인 낙엽을 밟아 보라. 그 감촉은 또 다른 삶의 맛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람 잘 없이, 군자 되어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살면 무릉도원이지요.”

## 名士칼럼



南時旭

(언론인 · 세종대 석좌교수)

우리가 쓰는 용어는 시대의 변화를 잘 반영한다. '직파간첩'이라는 말만 해도 그렇다. 지난 8월 국정원은 국내에 침투해서 활동 중이던 북한 공작원을 검거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공작원은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인 '35호실' 소속으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세 차례 태국인으로 위장해 국내에 침투한 뒤 북한 인민무력부가 전쟁 발발 시 정밀타격 대상으로 꼽고 있는 원지력 발전소와 공군 레이더기지를 촬영하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고 한다.

그들 '직파간첩'이라고 부르는 것은 복측이 남한에 직접 파견한 요원이기 때문이다. 이런 용어를 굳이 쓰는 이유는 남한이나 해외에서 북한에 밀입국해서 간첩 교육을 받은 다음 국내에 돌아와 공작활동을 하는 경우와 구별하기 위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간첩파견 간첩'은 과거에는 많지 않았다. 일본 지역에

## 경찰의 公安搜查에 거는 기대

서 조총련계 사람이 북한에 들어가 훈련을 받고 남한에 침투하거나 조총련을 거점으로 하여 대남공작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조총련은 북한 계기 때문에 조총련계 간첩은 직파 간첩이나 다름이 없다. 다만 1970년대에 일본이나 유럽 등지에서 공부하던 우리 유학생들이 일본과 유럽지역에서 활동하던 북한 공작원에 포섭되어 간첩이 된 경우가 있었다. 8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내의 학생운동권 중 주사와 일부가 북한에 밀입국해서 북한의 공작원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그 수는 많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간첩파견' 공작원 사건들이 적발되었다. 미국 시민권자가 북한에 포섭되어 국내에 간첩망을 조직한 이른바 '일심회' 사건과 북한에 밀입국한 수원의 민주노동당 당원 사건이 그 예이다. 일심회 사건은 정계와 권력층에 포진한 386출신들이 연루되었는지 여부가 주목거리였지만 관련자 5명이 국정원으로부터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로 앞으로의 검찰 추가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수원의 민노당원 사건은 그가 음모했다는 남한의 우익인사 40명에 대한 테러계획이 사실이 아닌, 그의 과대망상에 의한 자작극이라는 보도가 있어 좀 더 지켜볼 케이스이다. 그렇기는 하나 그가 북한에 잠입해서 '통일사업'에 협조하겠다고 복측에 약속하고 귀국 뒤에는 북한정권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친북파인 것은 사실인 모양이다.

이들 말고 요즘 언론에 보도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인터넷 등을 통한 친북분자들의 이적행위이다. 최근의 예는 지난 8월 서울경찰청이 통일연대, 전국민중연대 등 친북좌파단체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한 한국민권연구소의 최모 상임연구위원을 적발한 사건이다. 또 다른 케이스는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군정치의 이해〉라는 친북 서적을 팔고 있는 것을 뉴라이프전국연합의 고발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경찰이 과거에 비해 활발하게 대공작원 수사에 나선 것은 국민으로서 아주 마음 든든한 일이다. 앞에서 설명한 일심회 사건과 친북연구원의 인터넷 선군정치 찬양을 적발했을 때 모 우려 일간지가 "국정원과 경찰, 이제야 할 일 하나"라는 사설을 쓰고 이를 환영한 것은 그 만큼 공안 당국의 대공수사에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9월 친북 '통일교재'를 만들어 이적성 논란을 빚은 전교조에 대한 초등수사가 늦었다 해서 비판을 받았다. 하기가 경찰의 공안 파트는 위축될 대로 위축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공안부서는 찬밥

신세였다. 김영삼 정부 당시 약 4천명이던 경찰 공안부서 인원은 현재 2천명 선으로 줄어들었다. 일심회 사건수사를 적극 추진했던 김승규 국정원장은 물러났고, 친북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동국대 강경구 교수의 구속을 주장하던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쫓겨났으며, 불법 시위를 막던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시위대원을 보다 훨씬 많이 부상했는데도 농민 2명의 사망 책임을 뒤집어쓰고 자리를 물러났다. 여북했으면 김 국정원장이 퇴임하면서 국정원의 당연한 임무인 대공작원을 수사하던 것을 보람으로 느낀다고 말했겠는가. 그만큼 대공작원 수사에 방해가 많다는 뜻이 아닌가.

경찰도 이제는 공안사건 수사에 더욱 적극성을 보여 국가를 좌파세력으로부터 수호함으로써 국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때가 되었다. 김정일정권이 '직파간첩'을 파견하고, 해외의 친북분자를 공작원으로 만들어 몰래 침투시키고, 남측의 친북세력을 선동해서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북핵 실험을 정당화하는 선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남조선혁명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심회 사건 이외에도 3, 4건의 대공작원을 경찰을 포함한 공안당국에서 추적 중이라니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승규 원장 아래서 국정원의 주가가 올라갔듯 경찰의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본다.

## 忠北 警友會館은 이렇게 마련했다

—— 이 재 덕 (충북 경우회장)



기만 한데 그 東쪽이 上當區, 西쪽은 興德區로, 人口 70萬을 算하는 典型的인 教育文化의 都市이다.

이 莊嚴한 牛岩山이 건너다 보이고 由緒 깊은 無心川이 발 밑으로 흐르는 곳. 淸州에서 大田으로 나가는 6車線 幹線도로 변에 우리 경우회는 꿈에 그리던 동지(警友會館)를 틀었다.

會館規模는 크지 않고 坪地 70坪 連建坪 160坪의 地下 1층 地上 3층 건물인데 단단하고 아담하여서 신평 4億 4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買入하였는데 정말 볼 때마다 感懷롭다. 忠北警友會 歷史 37年 만에 처음으로 마련한 會館이니 會員들의 기쁨이 들 오죽하겠으며 또한 가는 期待는 얼마나 크겠는가?

나는 앞으로 會館 內에 장기, 바둑, 마작, 컴퓨터, 書藝 등 長壽教育場을 알차게

만들어서 누구나 경우회원은 자유롭게 찾아와서 餘暇善用的 기쁨을 滿喫할 수 있도록 「警友사랑방」을 만들 것이다.

나는 2005년 4월 27일 忠北 경우회장 競選, 當時에 重要な 推進事業으로 첫째, 경우회관 건립

둘째, 任員 先進地 視察을 公約한 바 있었기 때문에 먼저 會員(任員)들의 大 團合을 爲하여 私財 450만원을 들여 2005년 11월 1일 1박 2일 計劃으로 會長團과 理事 등 任員 42名을 이끌고 成功한 企業으로 世界에서 認定을 받고있는 (주)「포스코」를 訪問하여 그곳의 任員들의 特別迎接을 받으면서 長時間 視察하는 전 과정을 빠짐 없이 비디오에 담아오는 등 알찬 團合行事를 하였다.

나는 그 視察過程에서 두 가지 事實에 놀랐다.

처음에는 (주)「포스코」가 설립 40년의 긴 歷史를 가졌으면서도 지금까지 한번도 赤字를 내지 않고 黑字만 거듭 왔다는 기적과 같은 사실에 놀랐고, 그 다음에는 故 朴正熙 大統領께서 1968년 4월 1일 「포항 제철」竣工式에 參席하시어 建設要員들을 격려한 후 祝辭하는 근엄한 모습을 영상으로 본 우리 임원들이 愛國者, 愛國者 하며 깊은 감명을 받는 반응에 그분의 偉大함이

國民 뇌리 속에 아직도 刻印되어있는 程度를 짐작하면서 놀랐다.

일행은 (주)「포스코」가 透明한 支配構造와 健全한 財務構造를 갖춘 綜合競爭力 世界 1位의 global 우량기업으로 계속 남아있기를 빌면서 경주 보문단지를 찾아 코오롱 觀光호텔에서 旅裝을 풀었다.

이렇게 해서 先進地 視察은 전폭적인 호응 속에 마무리하였는데 問題는 경우회관을 만드는 것이었다. 1, 2 億원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市内 不動産 價格을 알아보니 최소 5億원은 필요한데 좀처럼 묘안이 생각나지 않아서 任員會議도 거듭하였다. 그런데 窮하면 通한다는 옛말이 정말 맞는 것일까?

平素 알고 지내는 在京 人事 中에 한참 잘 나가는 有力人사가 생각나서 그 분의 힘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05년 6월 19일 엄치불구 찾아가다.

찾아뵙고는 경우회의 特殊性과 警友會館의 必要性, 그리고 警友 獎學金 自體 募金 事業과 平素 地域社會 發展을 위한 奉仕活動 등을 詳細히 報告한 후 정부에서 최소한 3億원을 支援해 주도록 措施해 주실 것을 懇請하였다.

그후 나는 期待를 가지고 전화를 통하여 몇 번 더 부탁을 거듭하였고 이 과정에

서 임원과 회원간에는 曰可曰否 말도 많았다. 大概는 힘도 되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否定的 視覺을 갖고 있었지만 끝내는 지원을 요구한지 189일 만인 12월 28일에 그 분으로부터 直接 연락이 왔다.

忠北警友會館 建立基金으로 3億원의 예산을 忠北北道 警友會에 配定하였으니 값있게 써달라는 것이었다. 정말 이렇게 感激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정말로 흥분되는 순간이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그 분에 대한 존경심이 머리끝까지 차오른다. 돈 많은 機關이나 團體에서는 3億원이 별것 아닐 수 있다. 허나, 權力 없고 힘 없고 가난해서 누구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는 警友會 立場에서야 3億원은 결코 적은金額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中央에서 3億원 中央警友會 具弘一 會長님의 支援金 1億원, 自體基金 4천만 원 포함 4億 4천만원을 지불하고 會館을 買入할 수 있었고 여기에 税金 등 公課金 2천만 원을 들여 登記수속까지 完了(2006. 11. 10)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2단계로 自治團體예산을 또 確保하여 「경우사랑방」을 멋있게 알뜰하게 꾸미는 것이다.

決定的으로 支援해 주신 國會 李 模 副議長님과 中央 警友會 具弘一 會長님에게 紙面을 통해서 우선 感謝드리면서 그간에 會館物色 등 내 일처리 勞心焦思하면서 東奔西走하셨던 推進委員會 尹昌洙 會長님과 李尙春, 朴鍾瑞, 尹奎求, 安光錄, 崔宗奎, 李起彥 委員(理事)에게 깊은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 생활정보

## O 생강깍질을 쉽게 벗기려면

맥주뚜껑의 톱니부분을 이용하면 생강의 울퉁불퉁한 껍질이 쉽게 벗겨진다.

## O 딱딱한 치즈를 부드럽게 하려면

딱딱해진 치즈에 위스키 몇 방울을 떨어뜨린 후 그릇에 넣고 뚜껑을 덮어두면 치즈가 부드러워지고 맛과 향도 좋아진다.

## O 칼을 녹슬지 않게 하려면

자른 무에 식기세척용 세제를 바르고 여기에 칼을 갈면 녹슬지 않는다.

## O 토마토 껍질을 벗기려면

뜨거운 물을 깨얇은 다음 찬물에 넣어서 식혀주면 껍질이 얇고 깨끗하게 벗겨진다.

## O 밥이 설익었을 때

설익은 밥에 청주를 3~4 티스푼 뿌리고 밥을 그대로 잠시 썬면 잘 익는다.

미국보청기



전·현직 경찰관님께

15년 전통

미국보청기



부시 미국(전) 대통령  
모로 미국(전) 대통령  
레이건 미국(전) 대통령  
에 사용하는 보청기

■ 질문이 전혀 없고 깨끗하게 잘 들립니다.  
■ 15년 전통의 보청기 전문회사입니다.  
■ 매우작은 소리로 아주 잘 들립니다.  
■ A/S를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 10년 보증서 드림

서울 : 서울시 용구 남대문로3가 25번지 (구,서울시경 맞은편)  
전화 : (02)752-2580, 752-2589 핸드폰 : 011-229-0055

인천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222-1 푸른 B/D 2F  
전화 : (032)469-0033 핸드폰 : 011-229-0055